

무등산·영산강에 깃든 '전라도의 혼' 조명

광주시립미술관 기획전 '무등에서 영산으로'

무등산과 영산강에 깃든 전라도의 혼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기획전 '무등에서 영산으로'를 오는 5월 19일까지 본관 1, 2실에서 개최한다. 무등산과 영산강의 풍경, 삶, 문화, 역사를 다룬 회화, 사진, 설치, 아카이브 등을 통해 가까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무등산과 영산강 아름다움을 돌아본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 순수 소장품 중 무등산을 소재로 한 회화, 사진, 무등산 아래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다룬 작품의 소장작가 18명, 무등산과 영산강을 소재로 작업한 초대작가 6명, 영산강을 3년간 탐사하며 영산강의 시원지부터 목포하구언까지 영산강을 카메라에 담은 사진작가 6명, 무등공부방 아카이브 작가 4명 등 총3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무등산과 영산강의 모습을

회화·설치·사진 등 34인 참여 5월19일까지 양수아·배동신 등 소장품 엄선... 세계질 탐사기록

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 섹션으로 광주시립미술관 순수 소장품 중 1946년부터 1999년까지 그려진 무등산 그림 8점을 한번에 전시해 20세기 화가들이 무등산을 어떻게 그려왔는지 살펴본다. 194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80여 년간 예술가들이 바라본 무등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재)아시아인문재단이 운영하는 무등공부방이 연구와 활동을 통해 축적해 온 아카이브 자료도 전시했다. 막연하게 느껴왔던 무등정신에 대해 작품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아카이브 섹션이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광주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중 광주인의 삶과 멋(박은용, 서미라, 윤남용, 임남진, 조진호), 광주의 역사(김호석, 이응노, 하성흡, 허달용, 황영성)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천정고가 높은 가운데 전시장을 중심으로 무등산을 소재로 한 전통적 회화와 현대적 사진작품으로 무등산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기상을 보여주고자 했다. 대형 사진작품들(이주환, 임채욱)과 점으로 우주와 같은 무등산을 그린 회화작품(정송규)이 어우러져 무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 전시장의 높고 큰 벽면에 있는 영산강을 소재로 한 대형 벽면설치 작품(김남술, 김두석, 박선제)은 '무등에서 영산까지'를 보여주는 대형작품으로 무등산과 영산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영산강이 어머니의 강이자 어머니의 꿈으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모든 작품 가운데 설치된 질주하는 다섯 마리 말 설치 작품(강문석)은 좁은 우리를 벗어나 더 크고 높은 기상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표현한다.

세 번째 파란색 벽면의 특별 섹션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소장한 1946년부터 1999년까지 그려진 무등산 그림들을 전시했다. 광주미술사적으로도 또한 조형적으로도 20세기의 화가들(김형수, 양수아, 배동신, 임직순, 김영태, 박상섭)이 무등산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보는 한번에 살펴볼 수 있다.

무등산과 영산강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도 아카이브 자료로서 관람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배치했다.

무등정신을 문화적 사상적 예술적으로 공부하고 체화해 새로운 무등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무등공부방의 미술작품(김경주, 김병택, 박종석, 박하선)과 활동자료 등의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무등정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섹션을 마련했다.

사진의 기록성을 중시하는 사진철학을 바탕으로 꾸려진 5명의 영산강 사진 그룹(김금옥, 박철수, 송은순, 오상조, 전지현, 채수웅)이 3년간 사계절과 영산강의 시원지인 담양에서 목포 하구언까지 1만3666km를 답사하며 찍은 사진 작품을 전시했다. 영산강의 자연풍광, 역사유적, 삶의 모습 등을 담았다. 영산강에 대한 최초 대형 프로젝트로 영산강의 모든 것이 오롯이 담겼다.

무등산은 광주·전남의 중심이고 영산강은 광주·전남의 젖줄이다.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주, 담양, 화순이 접해 있고 영산강은 담양에서 발원해 장성, 광주, 나주, 영암 등지를 지나 서해로 흐른다. 무등산과 영산강은 언제나 광주·전남인과 많은 예술인들의 삶의 원천과 배경이 됐다. 무등산과 영산강을 주제로 한 전시를 통해 지역의 미적 가치와 무등이 주는 인문 사상, 영산강이 주는 미래에 대해 조망해본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이주환 작 무등산.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국립광주박물관이 오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제34기 광주박물관대학'을 개설한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제34기 광주박물관대학' 개설... 예술적 감성 확대

220명... 24일부터 매주 수 진행

국립광주박물관은 (사)국립광주박물관회와 공동으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깨우는 문화강좌인 '제34기 광주박물관대학'을 개설하고 수강생 220명을 모집한다. 한국과 동아시아, 세계 역사와 문화에 정통한 강좌를 개설해 시민들의 전통문화 이해와 인문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

오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오후 5시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12만원이다.

제34기 광주박물관대학은 2022년 제32기 대학 주제 '지적공감, 서양미술사'의 후속으로 19세기 이후 서양미술 역사를 주제로 한다. 교육은 △현대 미술과 서양의 미술 전통(박정호 서울대학교 교수) △19세기 유럽의 미술품 수집과 미술관(김민걸 전남대학교 교수) △서양의 20세기 사진(윤혜원 서울대학교 교수)

△19세기 러시아 미술(이진숙 미술평론가) △조현실주의(정은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김진아 전남대학교 교수) △입체주의와 추상미술(정무정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추상미술과 추상표현주의(김승환 조선대학교 교수) △개념미술(신정훈 서울대학교 교수)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미술관 산책(양승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비디오아트(박혜연 경희대학교 교수) △21세기의 새로운 미술(정연심 홍익대학교 교수) 등 12강좌로 국내 최고 서양미술사 전문가들이 출강한다.

강좌 종료 후인 12월 수강생 중에 신청자를 모집해 국립중앙박물관·오스트리아 레오폴트 미술관 공동 특별전인 '비엔나 모더니즘의 탄생(가칭)'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전남도립국악단, 6일부터 매주 토 '그린국악 시즌2' 돌입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공연장

'미래가 기억할만한 오늘의 전통'을 그려나가는 전남도립국악단(단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이 오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토요 가무악희 '그린국악' 시즌2를 시작한다.

이번 시즌2는 '백 투 더 베이직(기본으로 돌아가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에 정통한 국악 작품들로 관객을 맞는다.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 춘향가 중 '쑥대머리 대목', 심청가 중 '젓동냥 대목' 등 인기있는 판소리 눈대목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한영숙·박재희류 태평무, 이매방류 승무,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삼도사물놀이 등 오리지널 가무악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시즌2 특집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 편성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들을 위한 할인 및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같은 달 18일 5·18민주화운동 44주년 특집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 수어 해설 영상 제작

국립나주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을 찾는 장애·비장애 관람객을 위해 어린이박물관 전시 수어해설 영상을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누구나 어린이박물관 관람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음성과 수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수어 해설은 청각장애인 수어



전남도립국악단이 매주 토요일 오후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기획공연 '그린국악' 시즌2를 선보인다. 전남문화재단 제공

공연을 주최한 전남도 문화예술과 채종욱 팀장은 "전남도립국악단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대중적인 작품부터 실험적인 작품까지 공연 스펙트럼을 넓혀왔다"면서 "다양한 공연,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해설사가 직접 설명하고 있어 해설 정확도를 높였다. 영상은 '문화재를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이라는 전시 주제에 따라 고고학자, 소장품관리자, 보존과학자, 전시 기획자, 교육연구사 등 박물관 학예연구사 역할과 각 전시 공간 체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각 전시 공간에 배치한 QR코

한편 전남도립국악단이 운영하는 어린이국악단이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전남도 내 초·중등학교 재학생이며, 접수는 이달 12일까지다. 관람료 1만원. 예매문의 061-981-6923.

도선인 기자